



타원형 우주안에 '태양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751호

(음력 4월 4일) 2025년 5월 1일 목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 이낙연 '반명' 빅텐트에 지역 정치권 맹비난

강기정 광주시장 "내란세력과 거래 멈춰야"

이병훈 전 의원 "민주당·국민에 도리 아니다"

김원이 의원 "남은 여생 조용히 살아가시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며 한 때 '호남 대명론'에 불씨를 지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국민의힘 등과 '반명(반 이재명) 빅텐트 연대 의사를 표명하자 지역 정치권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반 이재명을 위해 내란 세력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격양된 목소리를 냈다.

강 시장은 "정권 교체는 바라는 국민을 생각하고, 찬바람 맞으며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을 기억해야 한다. 내란 세력과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병훈 전 민주당 의원이 이 상임고문의 '반명' 빅텐트 합류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극구 만류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상임고문이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이 전 의원은 "이번 대선은 탄핵정국을 심판하는 조기 대선이다. 탄핵정국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와 맥을 같이 한 한덕수 총리와 연대설까지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에 이어 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이다. 정치인은 자신과 당파

의 이익을 우선하고, 정치가는 자신의 이익에 앞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단결시킨다고 한다"고 이 상임고문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이 전 의원은 "지금은 장삼이사도 국난 극복에 함께 해야 할 때라는 걸 안다"며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정치 끝에 무엇이 남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전 의원의 글에 이 상임고문 지지자 등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남기자, 문금주 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검찰과 국립 프레이에 간해 원내 제1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악담을 퍼붓는 분들 자제하세요. 정의는 언제나 밝혀지고 승리한다"고 반박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목포)도 "당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굴하고 민주당이 키운 사람 아닙니까.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와 빅텐트라니요. 제정신인가요"라며 이 상임고문을 직격했다.

김 의원은 "당신을 키운 전남도민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우리 호남의 자

존심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남은 여생 조용히 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대선 출마 자체를 요구했다.

이 상임고문은 고향인 전남 영광군 선거구에서만 내리 4선(16~19대)을 하고 전남도지사에 당선된 후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정치 뱃줄을 전남에 묻은 정치인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5선 고지에 올랐다. 2020년 8월에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며 한 때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를 달리며 '호남 대명론'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등 혈투를 벌인 끝에 낙선해 정치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는 새로운미래를 창당해 광주 광산구에 출마, 6선 도전에 나섰으나 민주당 민형배 의원에게 대패했다.

김승호기자

광주 공원·파크골프 23곳  
참진드기 서식...물림 주의

임상증상 나타나면 의료기관 즉시 진료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근린공원, 등산로, 파크골프장 등 총 41개 지점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서식 분포를 조사한 결과 23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한 마리 이상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참진드기가 채집된 곳은 일부 공원 주변의 야산과 연결된 초지, 잡목림, 등산로 등이다.

채집된 참진드기에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참진드기에 물리는 시기는 3월부터 10월 사이 주로 발생하며 이 중 5월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물린 부위별로는 다리(21.9%), 목(15.5%), 복부(14.6%) 순으로 높았다.

지난 15일 전북 남원에서 올해 국내 첫 SFTS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참진드기에 물렸다면 깨끗하고 끝이 미세한 핀셋으로 진드기의 머리 부분을 피부와 최대한 가깝게 잡은 후 일정한 압력을 줘 피부와 직각으로 천천히 빼내야 한다. 제거 후 진드기의 입 부위가 피부에 남아있다면 핀셋으로 제거하고, 손과 물린 부위를 비누나 알코올 세정제로 깨끗이 씻고 소독하면 된다.

참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SFTS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린 뒤 임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참진드기 물림을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야외활동을 할 때 기피제를 사용하고 작업복과 일상복을 구분해 착용해야 한다.

풀밭에 앉을 때는 돛자리를 사용하고 귀가 뒤에는 옷을 털어서 세탁하고 몸에 벌레 물린 상처나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야외활동 빈도가 잦은 시기에는 참진드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만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광주 최고 땅값 총장로우체국  
1227만원...왕동 임야 884원 최저

광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총장로 우체국으로 m당 1227만원이었으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884원이다.

광주시는 토지 관련 국제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결정·공시 대상은 37만3980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1.94%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145%보다 높았으며 전국 평균272% 보다 낮다.

자치구별로는 북구 2.23%, 남구 2.16%, 서구 2.09%, 광산구 1.72%, 동구 1.38% 순으로 상승했다.

개별지 37만3980필지 중 지난해 대비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5만8306필지이며 하락한 토지는 9840필지였다.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같은 토지는 3996필지이며, 신규 토지는 1838필지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동구 총장로2가 우체국으로 m당 1227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37만원 하락했다.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m당 884원이며 지난해 대비 7원 올랐다.

이슬비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모의시험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3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실드팩스 내 선상 투표지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선상투표는 선원들이 선관에서 팩스를 이용해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관위에 전송하면 선관위에 설치된 실드팩스(투표지의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합·출력하는 기능이 있는 팩스)로 수신해 투표지 회송용 봉투에 담아 해당 선관위로 송부하고 선거 당일 개표한다.

장미로 물드는 하루

# All Day Rose

2025. 5. 16. (금) - 25. (일) 곡성섬진강기차마을

##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